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9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 당 자	• 안전협력팀장 • 담 당 자	민동성 ☎440-5751 이숙이 ☎440-575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 6,300만 원 확보도 -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재난관리 단계 총 5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평가했는데, 시도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직접 평가하고 군·구는 시도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기존의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 안전총괄부서장의 의사결정 및 상황판단 등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주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6,3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보다 우수한 성적이다.

한편, 군·구 평가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각각 받게 됐으며, 산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사진설명: 평가단과 심층인터뷰 하는 인천광역시장 (집무실, 2024.2.2.)